

'김' 산업 발전방안 머리 맞댄다



글로벌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김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김산업연합회와 한국해양수산발전포럼은 지난 12~13일 전남 우수영유수호텔에서 김 산업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생산자민연합회, 마린김생산자연합회, 김수산종자생산자연합회, 김생산 어업인 등 유관기관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김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확대, 상생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묘와 생산 가공, 수출, 소비 등 각 분야별 대표 기관과 전문

경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갖고 세계적 식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육성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 관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 노진관 수출가공진흥과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김수출은 2007년 이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도 중국, 미국 등 세계 김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다만 수직적 분업화 된 김산업구조로 인해 소규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조미김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미김 수출 정체 등 글로벌 식품 선도국과 단순 원료 공급

한국김산업연합회, 해남서 워크숍 개최

지속적 성장·시장확대·상생방안 모색

국 간의 갈라짐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산지인 남서해안을 생산·가공·수출·R&D 기능 등이 집적된 김 가공벨트로 조성하고, 가공공장시설 현대화와 설비 자동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김 종자산업 육성과 단계별 품질위생관리 강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종자 생산 현황과 김 수급 동향, 수산부품 자조급 사업 현황과 운영평가, 일본의 김 등급제 운영과 공판제도, 김제품의 국제식품규격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인 5억 1300여만달러를 기록, 담배, 참치에 이어 농수산물 중 3위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추세

리만 오는 2024년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남은 연간 8~9만여톤(전국대비 18.6%)의 물김과 마른 김 4,500만톤(전국대비 30%), 지난 28만 7000톤(전국대비 80%)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산 물김 생산량은 9만여톤, 989억원의 사상 최대 위판고를 올리기도 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1개소의 김, 자반가공공장을 운영해 김 가공업 규모가 3500여여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해남)은 "글로벌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을 총망라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김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가 더욱 다져져 한국 김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는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군, 옛 해동주조장에서

'해동문화올림' 행사 성료

해동문화학교 결과발표회...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사

담양군은 "지난 14일 담빛길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담양읍 원도심에 위치한 구)해동주조장 문화재공간에서 '해동문화올림' 문화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해동문화학교'에서 결성된 해동문화동아리 5개 팀(해금, 벽화, 가야금, 드럼, 목공예)과 '2018해동문화학교' 수강생 148명이 참여, 석 달 이상의 연습을 거쳐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선보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재즈밴드 및

창작악그림의 초청공연과 푸드존, 소망콘 만들기, 스텝퍼투어, 포토존 등이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해동문화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매주 1회 총 15차시 운영, △남도민요 판소리 △지필묵연을 가지고 놀아 봐요 △규방공예 △죽세공에 입문 △유래 뿔패 상쾌한 글쓰기 △단소야 놀자 일곱 가지 보배 △칠보와 금속공예 △오카리나 라이프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 청자축제 준비 박차...중간보고회

이승욱 군수 청자촌 현장방문 이어 추진부서와 소통 홍보



이승욱 강진군수는 실과소, 읍면장과 함께 청자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위행사 중간보고회를 지난 13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개최 전 행사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보완하는 회의였다. 진행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단위행사별 해당부서의 추진실적 보고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홍보실은 개막행사 하루 전까지 부스 세팅을 마무리 할 것을, 환경축산과는 쓰레기를 수거가 용이한 도로변에 비치해 수거의 편의를 높여주는 의견을 제안했다. 행사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는 보완점 개선점을 종합해 앞으로 축제 추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

견을 바탕으로 손잡듯이 친절·정결 음식점·숙박업소 운영, 화장실 관리 철저, 청자촌 축제장 청소, 국도 제23호선 도로변 풀베기 작업, 기관·사회단체 축제 홍보 현수막 게시, 읍면 마을방송 적극 홍보, SNS 등 활용한 적극 홍보, 강진읍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상가 주변 청소 및 화분관리 철저, 청자축제장~마담~가우도~다산초당 인근 관광지 연계 홍보 등 관광객이 강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제46회 강진청자축제는 대표축제에 걸맞은 정통성 확보와 새롭고 참신한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해 흥을 높이고, 단지고·적시는 체험(투게더 점핑 소일), 나이트 팝 페스티벌을 킬러콘텐츠로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제46회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라는 콘텐츠를 대표산업 기반으로 조성하고 축제에서 파생하는 각종 효과를 통해 군민 소득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축제 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민 기자

영암군, 다문화가족에게 무상 건강검진

여성가족부·중앙대학교병원·KRX 국민행복재단 주관

영암군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와 중앙대학교병원, KRX 국민행복재단 주관으로 '2018년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을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3개단체(여성가족부, 중앙대병원, 국민행복재단) 협약으로 매년 전국 저소득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무상으로 지원 사업으로 영암군은 연초에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영암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전에 198명을 접수받아 대상자별 검진 시간을 정하고, 통역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검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진료는 중앙대병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료진과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버스를 이용한 문진과 근·골격계 X-ray, 심전도, 초음



파, 면역 혈청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암관련 검사, 심리검사 등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추후 검진 결과 중증질환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1인당 3백만원 이내의 치료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곡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여수시 해양공원에서 열린 제1회 전남 농촌체험여행 박람회에 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45여 명이 참가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하는 등 체험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가볍게 떠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농촌여행"이라는 주제로 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써 전남 20개 시·군 80개 체험휴양마을이 참여했다.

곡성군 참여자들은 13일 오후 5시에 개최된 개막식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으며,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체험객들의 방문을 기대했다.

곡성군 체험부스에서는 12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장점과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곡성지역의 기후조건으로 그 맛과 향이 으뜸인 멜론을 소개하며 무더위에 지친 체험객에게 멜론과 빙수를 곁들여 멜론조각 만들기, 멜론바 만들기 등 체험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체험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